

민족주의 담아낸 1천만 관객의 영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장재현 감독
'파묘'

영화 '파묘'는 제목이 주는 으스스함 때문에 썩 그리 보고 싶지 않은 영화였다. 그런데 천만 관객 영화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감독상, 여우주연상 외에도 '2024 관객이 뽑은 올해의 영화상' 등 굵직한 상을 수상하고 보니 궁금증이 생겨 무서움을 무릅쓰기로 했다. 감독은 전작 '검은 사제들' (2015)과 '사바하' (2019)의 오컬트 장르를 '파묘' (2024)에도 이어갔다. 이 세 작품을 통해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장재현 감독의 집약적 탐구는 기획과 시나리오 작가를 겸한 감독으로서의 결출함을 과시하게 한다.



장재현 감독 '파묘'.

(주)쇼박스 제공

을 그치지 않는 병으로 입원 중이다. 갖은 치료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중국에는 무당을 불러들인 것이다. 화림은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고 봉길은 부적 주머니를 아기의 배 위에 올려놓고 경문을 읽는다. 화림은 아기엄마와 집사에게 아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같은 증상을 보일 것이라 말하자 의심을 품었던 이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확 바뀐다.

의뢰인의 저택으로 이동하는 길에 화림의 독백이 이어진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어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다. 귀신, 악마, 도깨비, 요괴... 그들은 언제나 밝은 곳을 그리워하며 질투하다 아주 가끔, 반칙을 써 넘어오기도 한다. 그때 사람들은 날 찾아온다. 음과 양, 과학과 미신.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의뢰인 박지용(배우 김재철)과 함께 앉아 있는 거실, 2층에서 노인의 고통소리와

물건을 던져 부서지는 소리가 이어진다. 이런 일이 일상이라는 듯한 가족들의 반응과 함께 의뢰인이 설명한다. 형이 정신병원에 있다 자살했는데, 그때부터 자신과 갓 태어난 아들에게 눈을 감으면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목을 조르는 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3대에 걸친 장손에게 닥친 이 화를 두고 화림은 "뫓바람"이라 확인한다. 한국으로 돌아와 화림은 거액의 이장 비용을 지관 김상덕(배우 최민식)과 장의사 고영근(배우 유해진)에게 제안한다. 상덕은 현지답사 후, 단박에 거절한다. "처음 보는 악지 중에 악지"라서. 지용의 설득과 화림의 대살극과 함께 하지는 제안에 따라 결국 파묘를 시행한다. 서울 사는 지용의 고모(배우 박정자)는 100년 전 작고한 부친이 어떤 사람 인지를 아는 유일한 인물. 그러나 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국면으로 나아간다.

이 영화는 뭔가 복잡하고 신비로우면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분위기, 개인사인듯 민족사인듯 보다 많은 것을 담으려 했다는 과잉이 느껴져 장을 구분하지 않으면 감상하기 버거웠을 법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외 6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4장 동티'로부터 장르가 확 바뀐다. 앞부분이 오컬트라면 뒷부분은 크리처라 뒷부분으로 갈수록 공포가 점점 엄습해든다. 생각해보면, 파묘란 집안의 역사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이장을 위해 파묘하는 일은 살면서 한두 차례는 보아왔을 법한 일이라서. 이는 풍수지리이자 샤머니즘이 동반된 우리 민속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감독은 사면을 대표하는 인물로 할머니신역에 무속인 고춘자를 캐스팅했다. 일본 귀신 오니도 이 할머니신에게는 못 당한다.

오니는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지만, 한국 혼령들은 아무리 혐해도 자신에게 관계된 해당자 외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 귀신은 염치가 있는 편이다.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감독의 의중에는 민족주의가 있었다. 일제에게 충성했던 친일파로서 작위와 훈장을 받고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영화로라도 혼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것은 등장인물의 이름이다. 윤봉길 의사, 독립운동가 김상덕, 여성 항일운동가 이화림, 개화파 고영근 그리고 친일파 배정자 등의 이름을 감독이 따왔다. 파묘 3인방의 차량번호가 0815, 0301, 1945인 것 또한 그 의도를 단박에 읽을 수 있게 한다. 관 쪽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포스터가 한반도 모양인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아직도 파묘할 것이 남았다는 얘기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분열·혼돈의 한국 사회, 독서 중요성 치솟아

취재수첩
박찬
취재2부 기자
chan.park@jnilbo.com

혼돈의 대한민국 사회, 책 읽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대통령은 더더욱 그런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독서'라는 책을

추천하며 독서하지 않고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독서 부재 문제를 꾸짖었고, 이는 정치계에서 구시대적 세계관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멀쩡한 국민을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는 현실로 이어졌다고 한탄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필두로 지난달 19일 발발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혼란스러운 최근 정국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독서'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사치 또는 낭비로 여겨지는 실상에 놓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국민을 정보로부터 평등하게 해 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SNS)는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을 신속하게 퍼뜨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등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매개체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모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독서는 개인의 소양과 가치관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단 정치인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책 읽기에 동참해야 할 이유다.

독서 인구가 지속 하락하는 실정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출판업계에 내린 단비가 됐다. 통계청은 한강 신드롬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서적출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8% 늘어 9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렌탈전화(RX) 전문기업 프리핀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이 설 연휴 기간 독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전남도 또한 이에 맞춰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문학 열풍 가속화에 주력하

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0일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에서 면회 온 김기현 의원 등 국민 의힘 소속 의원 5명을 만나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뜻을 전했다. 서부지법 폭동에 동조하거나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2030 청년들을 의식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독서의 중요성은 대통령이 이처럼 망상의 늪에 빠져 구치소에서조차 분단 이래 가장 큰 국민적 분열에 기름을 붓고 있어 더욱 시의적절하게 다가온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환경 조성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